

## 정세봉 소설 연구

최 병 우\*

### 요 약

정세봉은 농민으로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개혁개방을 전후한 시기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치밀하게 소설로 창작해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 왔다. 본고는 정세봉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세봉의 소설에서 다루어진 대표적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둘째 공산주의 국가 건설 시기에 중국사회에 만연했던 출신성분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현실인식 등이 그것이다.

정세봉은 소설의 소재, 등장인물, 사건 등 모든 것을 직접 본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창작방식은 체험이 누적된 농촌을 제재로 한 소설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의 문학 세계가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제어: 개혁개방, 자본주의화, 현실비판, 권위부정, 출신성분, 이기심, 작가적 한계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목차

1. 서론
2. 권위 부정
3. 출신성분론 비판
4. 개혁개방 전후의 현실과 이기심
5. 결론 : 정세봉의 작가적 한계

## 1. 서론

고중 졸업 후 농민으로 고된 삶을 살면서 소설 창작에 전념한 정세봉은 1975년 3월 『연변문예』에 「불로송」을 발표하여 등단한다. 이후 문혁 시기의 상처를 다룬 단편소설 「하고 싶던 말」(『연변문예』 1980.4.)로 상흔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였다.<sup>1)</sup> 이어 극좌적 이념이 지배하던 시대에 당의 정책을 한 점 회의도 없이 인민들에게 집행한 순복도구와 같은 기층간부의 모습을 비판한 「불세위크의 이미지」(『장백산』 1991년 2기)를 발표하였다. 작품 발표 후 반당, 반사회주의 독초라는 이름의 고발로 필화를 겪을 뻔했으나 길림성 당위 선전부가 최종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sup>2)</sup>으로써 이 작품은 조선족 문단에서 반성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고<sup>3)</sup> 정세봉은 밑바닥 인생 속에서 현실에 대

1) 「하고 싶던 말」이 가진 상처문학으로서의 의의와 한계는 장정일, 「소박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승리」, 정세봉 편저,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 정세봉과 그의 문학』, 신세림출판사, 2017, 201-206면에 상론되어 있다. 정세봉 소설에 대한 평문의 대부분은 이 책에 채수록 되어 있다. 이하 이 책의 인용은 「필자명」, 「글명」,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면수로 밝힌다.

2) 「불세위크의 이미지」가 겪은 필화 사건 경과는 김철호, 「정세봉의 「불세위크」의 이미지」,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63-68면과 조성일, 「소설 「불세위크」의 이미지의 풍파」, 같은 책, 79면-89면에 상론되어 있다.

한 강한 비판정신을 드러낸 작가로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된다.

조선족 문단에서 정세봉의 소설에 대한 평가는 문혁 기간의 극좌적 현실에 의해 발생한 상처를 그린 대표작이라는 점에서 『하고 싶던 말』을, 공산당의 정책에 대하여 회의해 보는 일 없이 농민들에게 강제하는 일에만 치중한 순복도구로서의 공산당 기층간부를 비판했다는 점에서 『불세워크의 이미지』를 고평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sup>4)</sup> 또 농민으로서 밀바닥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당대 중국의 현실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치밀하게 소설로 창작해내고 있다는 점도 그의 소설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정세봉의 문학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한 김호웅<sup>5)</sup>은 정세봉의 문학을 밀바닥 삶을 통해 병든 사회의 제 면모를 불굴의 작가정신으로 그려낸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한다. 이어 김호웅은 정세봉이 치열한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그려낸 문학세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농촌의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열과 열망을 드러낸 단계, 비정하고 허황한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보여주는 단계, 신과 인간의 부재와 사회비판의 힘을 보여준 단계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해명하고, 정세봉의 문학이 정치사의 변천과 농촌의 인정세태 등을 다룰 때 밀바닥 인생의 관점에서만 아니라 위로부터 인간과 사회를 조망하는 시각을 확보하면 그의 문학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라는 진

3) 정세봉 소설이 조선족 문단에서 반성문학으로 갖는 의미와 위상은 김관용·허정훈, 『중국 반사문학의 문맥에서 본 조선족의 반사문학』,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240-257면을 참조할 것.

4) 정세봉이 자신에게 작가적 명성을 가져다 준 두 작품의 제목을 자신이 상재한 두 소설집(『하고 싶던 말』, 민족출판사, 1985, 『불세워크의 이미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8.)의 표제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작가의 두 작품에 대한 애정과 자신감을 알게 해 준다. 이하 작품 인용은 작품집에서 하고 『작품명』, 『작품집명』, 면수로 밝힌다.

5) 『정세봉과 그의 문학세계』,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171-188면.

단을 내리고 있다. 이 평문은 정세봉의 문학에 대한 조선족 연구자들의 기존의 평가를 정리하고 작가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적하여 현재까지의 정세봉 소설에 대한 폭넓은 평가와 함께 그의 문학이 지닌 한계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본고는 상처문학, 반성문학이라는 관점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인식을 중심으로 고품을 받아온 정세봉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세봉 소설에서 제시되는 여러 주제 중, 첫째 사회에 만연해 있어 누구도 그것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권위에 대한 부정, 둘째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를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계급의 적을 상징하면서 만들어진 출신성분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에 불어 닥친 자본주의화에 대한 현실인식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정세봉이 그의 소설을 통해 주장하고자 한 바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핌으로서 그가 소설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실체가 확인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가 『‘볼셰위크’의 이미지』를 상재한 이후 더 이상 소설 창작을 못하게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권위 부정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에서 당원이란 자부심의 근거였다.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 국민당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이 엄중했기에 공산당 측에서는 이념이 투철하고 당성이 지극하여 당의 존재에 해를 입히지 않을 인물들에 한해 당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 당원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유지되어 당원이 되는 것은 개인에게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

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중국 인민들에게 공산당원이란 도덕적 인성과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추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인물의 표징이 되었다. 공산당 기층간부들은 당이 결정한 정책을 현장에서 인민들과 힘을 합쳐 헌신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당이 요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존재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기층 단위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원이자 기층간부로서 상당한 권위가 부여되고 기층 단위 내에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한 인물이 공산당원이 되고 기층간부가 된다는 것은 기층 단위 내에서 일정한 권위와 권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기층간부들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은 많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제재로 등장하고 있다.<sup>6)</sup> 이는 당의 정책에 복무하는 것이 문학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인민들의 기층간부의 헌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저변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불세위크』의 이미지』에서 정세봉은 기층간부인 공산당원을 완고한 이념에 사로잡혀 당이 결정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인민들에게 강제하는 순복도구로 그림으로써 공산당원과 기층간부의 권위를 부정한다.

아들이 기층간부인 자신의 행위를 비난하는 행실에 쓰러진 윤태철은 병상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는 지주를 몰아내라는 당의 정책에 따라 구룡촌의 지주 허영세를 투쟁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의 집을 몰수하여 자신이 들어가 살았고 집체 영농이 시작되자 남보다 앞서 마을을 생산대 체제로 묶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6) 리원길의 『설야』에 등장하는 건내천 지부서기 지탁준이나 류원무의 『봄물』에 등장하는 왕예 현장 등이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정책이 집체 영농에서 개체 영농(호도거리)으로 바뀌자 토지를 분배를 받았으나 노동력이 없는 허영세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주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건국 이후 당에서 하달된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구룡대대 당원들과 간부들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군중운동으로 번져가기 마련이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헌신적으로 실천하였던 많은 정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윤태철 자신은 당의 지시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인민들에게 내리먹이는 순복도구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규률을 무시하고 자기의 견해와 배짱대로 처사할 수 있는 당원질 하기란 기실 식은 죽 먹기인 것이다. 지난 세월에 당에서 하리는 일들이 윤태철의 마음에도 내키지 않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렇지만 윤태철은 무정무심의 강유력한 당규률과 다정다감하고 유분별한 마음과의 모순에서 오는 고민과 곤혹 속에서 결국은 일체를 무조건적으로 당규률에 복종하는 것을 철 같은 삶의 신조로 삼아왔다. 그는 당을 믿었고 또한 당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던 것이다.<sup>7)</sup>

윤태철은 당의 지시를 곧이곧대로 전파한 자신의 행동이 당원으로 당연한 결정이고 당을 믿은 자신의 결정이며 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한 결과라 생각한다. 윤태철의 이러한 생각은 일견 맞지만 상당 부분 왜곡된 것이라 하겠다. 중국 건국 초기 중국의 기층간부들은 당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으로 당의 정책을 소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건국 이후 여러 정치 파동의 과정에서 관료와 지식인들이 탄압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당의 정책을 곧이곧대로 수행하여 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 숙청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경험한 기층간부로서는 당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도리가 없었

7) 『불세워크의 이미지』, 『불세워크의 이미지』, 219면. 이하 작품 인용은 원문대로 하되 가독성을 위하여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에 맞춘다.

을 것이다. 대약진운동, 사청운동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격한 공산당원 기층간부들로서는 순복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돌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윤태철의 과거 회상과 반성 그리고 아들 윤준호가 평가하는 아버지 윤태철의 모습은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는 공산당원이 가진 비인간적인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 하겠다.

정세봉이 『불세워크의 이미지』에서 보여준 공산당원 기층간부에 대한 이러한 날선 비판은 1991년 『장백산』지에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 주간 남영전과의 상의 과정에서 발표 후 문제를 우려해 삭제한 부분<sup>8)</sup>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건 바로 ‘불세비키 화석’이지요. 틀림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혈색이 짙은 감각이 그걸 충분히 실증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히만 관찰한다면 복부부위에 누른빛의 맛과 마치가 새겨져 있는 걸 무난히 발견할 수 있지요. 이건 시신 위에 덮었던 불세비키 당 기폭이 수만 년 동안 수성암 속에서 그대로 화석으로 굳어진 겁니다. 이 적색의 감각 속에서 인간은 언녕 죽어 있었지요. 말하자면 독립적 사유체로서의 인간, 다정다감한 감정체로서의 인간은 전혀 무시되어 있었다 그 겁니다. 그 대신 불세비키당의 집단적 신념과 의지 같은 것이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었지요.”<sup>9)</sup>

윤태호는 혼수상태에서 자신의 시신이 화석으로 발견된 꿈을 꾸다. 자신의 시신을 두고 유명 인류학자는 화석인류라 결론짓고, 독

8) 소설집 『불세워크의 이미지』에도 실리지 않았으나 2003년 한국에서 출간된 『불세비키의 이미지』에 전문이 수록된 이 부분은 책으로 2면(200자 원고지 9면) 분량으로 윤태철의 꿈 내용으로 되어 있다.

9) 정세봉, 『불세비키의 이미지』, 신세림, 2003, 148면.

립적 사유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불세비키의 화석이라 주장한 것이다. 사태가 비약되어 자신의 시신이 헬리콥터에 실리어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느끼자 자신은 인간으로 태어나 불세비키이기는 하였지만 다시 인간으로 회귀하여 묘혈에 묻힌 것이며 학자라는 사람이 인간이 불세비키가 될 수 있고 불세비키가 다시 인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냐고 항변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던 윤태호는 아내의 손에 의해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된 이 부분은 정세봉이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함축하고 있다.

중국에서 발표한 때 삭제한 이 부분은 정세봉의 공산당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매우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정세봉이 생각한 공산당원은 독립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존재이자, 인간적인 면모를 갖지 못한 채 당의 이념이나 지시에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로봇 같은 존재일 뿐이다. 이는 당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당의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공산당원에 대한 비판이며 중국 사회에서 공산당원 기층간부가 갖는 일정한 권위에 대한 부정이라 하겠다.

정세봉이 『「불세위크」의 이미지』에서 보여준 중국 사회에서 인정되는 공산당원 기층간부의 권위에 대한 부정은 『빨간 '크레용 태양』』에서는 중국 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모주석의 서거를 제재로 하고 있다. 정치대장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친구들과 천렵을 나갔다가 해가 서천에 기울어 친구들과 구룡천 외나무다리를 건너면서 모택동의 만수무강을 비는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오던 석호는 추도곡이 울리고 마을에 반기가 걸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누군가 높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그러나 마을에 도착하여 모택동 주석이 서거한 사실을 안 석호는 혼란에 빠진다.

전혀 상상해 보지 못한, 우주 속의 ‘십장생(十長生)’과 더불어 길이길이 만수무강하리라고 추호도 의심치 않았던 통념과 확신이 우리의 머리속에서 드디어 돌사태처럼 무너져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것이 신화였음을, 신화였기에 깨여지는 것임을 우리들의 두뇌가 번개처럼 터득하는 순간이었던 것이다.<sup>10)</sup>

모주석의 서거를 안 순간 이러한 각성에 이르는 것은 중국 인민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모주석이라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석호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최대한의 슬픔 속에 근엄하게 모주석을 애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프로레타리아의 감정이 부족한 듯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를 근엄과 슬픔 속에 애도의 시간을 보낸 후,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말하고는 모주석의 태산 같은 은덕과 유지를 이어받아 계속혁명을 이어가기 위해 저녁 후에 담배 작업을 완성하자는 연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난 석호는 집을 뛰쳐나와 마을을 배회하다 마을 한 칸 초막에서 누워 정체를 숨겨 버리고 시달린다.

뜻밖의 충격적인 사변, 모주석 서거로 인발된,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이런 의혹과 우리들이 여태껏 영위해 온 즐거운 삶과 질서가 송두리째 뒤흔들릴 것만 같은 불안과 자기 개인보다는 나라의 민족이 일조에 기둥을 잃은 것만 같은 그런 한없는 허전한 괴로움이었다.<sup>11)</sup>

모주석의 서거는 절대적 권위 몰락이었고 안정되었던 시대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이라 느껴졌다. 그러나 정치대장인 석호의 아버지

10) 『빨간 '크레용태양』, 『불세워크의 이미지』, 160면.

11) 『빨간 '크레용태양』, 『불세워크의 이미지』, 168면.

는 모주석의 서거를 애도하면서도 모주석이 지도한 바 혁명을 위하여 담배 작업을 완수하자고 하여 모주석의 죽음이 주는 충격보다는 일상의 지속이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 집을 뛰쳐나온 석호는 모주석의 서거로 삶의 질서가 송두리째 뿔뿔히 갈라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지만 잠든 사이 찾아온 동네 바람쟁이 희애와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든다. 오랜 시간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조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았던 불안과 우울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그 순간 석호와 희애에게는 모주석이라는 절대적 권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세봉은 모주석의 서거를 접한 석호 부자의 심적 추이와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던 것이 실상 일상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태양은 동토대의 먼 하늘에』에서는 문단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원로 시인이 자신이 살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권력을 가진 제자를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권위가 일상적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작품으로 『인간의 생리』에서는 불우 작가 농우선생을 존경하던 현미가 그의 작가적 능력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작품집을 출간하지 못하는 처지를 돕기 위해 출판 경비를 찬조받기 위해 애를 쓴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인품을 갖춘 이군철 사장을 만나 현실에 눈을 뜨게 되자 '농우 선생의 작가적 후광'은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송모하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 결과 현미의 눈에 비쳐진 농우 선생의 이미지는 초라하고 가련한 밑바닥 인생<sup>12)</sup>일 뿐이다. 이 작품 역시 위대한 작가라는 권위는 현실의 무게 속에서 부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폈듯이 정세봉은 사회주의 중국을 지배하던 무조건적 권위를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족 비평가들에 의해 당대 현실에

12) 『인간의 생리』, 『불세워크의 이미지』, 53-4면.

대한 비판적 성향을 드러내는 작가로 고평을 받아왔다. 농민으로 사회의 하층에서 오랜 기간을 살았던 정세봉이 공산당원과 기층간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모주석의 죽음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작은 권위들까지 회의해 본 것은 당대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 비판정신의 결과이다. 정세봉이 보여준 이 같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크고 작은 권위와 권위의식에 대한 부정은 그가 작가로 나아가게 해 준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정세봉의 이러한 비판정신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크고 작은 권위가 약화되는 데에서부터 평등 사회가 담보된다는 점에서 그의 작가로서 치열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 3. 출신성분론 비판

정세봉 소설에서 현실비판의 중심에 자리한 것 중 하나로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수립된 이후 문혁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국 사회에 만연했던 출신성분론을 들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 기간 중 국민당의 부패와 폭력에 저항하는 계층과 연대하여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던 국민당과의 전쟁을 불과 4년 만에 승리로 이끌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다.<sup>13)</sup> 중국공산당은 중국 수립 이후 공산주의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주와 친일파, 국민당 스파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공내전 시기에 연대했던 다양한 정치 집단도 숙청당하게 된다.<sup>14)</sup>

13)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할 때도 중국 대륙은 전쟁 중이었다. 1949년 10월 14일 인민해방군이 광저우를 함락시키고, 12월 10일 장제스가 충칭에서 타이완으로 탈출하면서 국공내전은 종식되었으나, 1950년 10월 인민해방군이 신강과 티베트를 점령하기까지는 내전이 지속되었다.

14) 1950년 6월부터 1952년까지 진행 토지개혁, 1950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친

공산주의 국가 건설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사회 혼란의 책임을 이전 사회의 기득권 세력인 친일 관료와 지주, 그리고 자본주의적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친일파와 지주는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자손들까지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다. 출신성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판과 박해의 대상이 되는 상황은 대약진운동과 사청운동을 거쳐 문화대혁명이 진행된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많은 작가들은 본인의 인성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성분에 따라 한 인간의 삶과 미래가 결정되는 출신성분론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김학철은 『분내와 흙내』를 비롯한 여러 편의 산문에서 세상을 떠난 지 오래 된 조상의 성분을 근거로 그 자손을 계급의 적으로 돌리는 출신성분론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또 리원길, 류원무, 박선석 등 극좌적인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다룬 많은 작가들은 출신성분으로 인해 계급의 적으로 분류되어 핍박을 받는 인물들 중 상당수가 공산주의 사회를 와해하려는 위험 분자이기보다는 공동체에 헌신하고 또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출신성분론의 한계를 지적한다. 정세봉 역시 『민들령』, 『불세위크』의 이미지, 등의 소설에서 출신성분론의 폐해를 소설의 중요한 주제로 사용

---

반혁명 진압, 1951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고위 관리를 정화한 삼반운동, 1952년 1월부터 6월까지 민간 부문에 대해 일으킨 오반운동, 1954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77만 명 이상의 지식인들을 체포한 반혁명사건 등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으나 지주와 관료 그리고 지식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지주, 친일파, 국민당 스파이 등을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암약하는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려 폭력을 자행하였고, 그들의 자손도 출신성분이 그러함으로 언제나 인민의 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논리로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중국 건국 초기 정치적 탄압과 숙청 과정에 대해서는 프랑크 디뢰터, 고기탁 역, 『해방의 비극』(열린책들, 2016.)에 상세하게 고구되어 있다.

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보여준다.

『민들렁』의 작중화자 분희는 지주 성분에 우과분자였던 아버지가 교단에서 쫓겨나 민들렁으로 와서 노동개조를 하던 중 문화대혁명이 발발하자 독재소조 성원들의 몰매에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고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비극을 당한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날 밤, 해란강에 투신하려 분희를 살려 낸 고중 동창 현철은 출신성분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때부터 많은 것을 생각했어. 조상의 성분 때문에 후대까지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것 같았어. 분희만은 정말 억울한 것 같았어!<sup>15)</sup>

이는 고중 시절 학급에서 가장 공부를 잘 하는 학생 중 하나였던 분희가 학급에서 이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름에 따라 일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감회를 이야기한 것으로 열사의 아들인 현철이가 출신성분론에 대해 회의하게 된 계기를 보여준다. 분희는 현철이가 아무리 폭풍 속의 바다 같은 인간세상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운명을 자기절로 개척해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자 작으나마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현철의 사랑과 도움 아래 분희는 생산대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출신성분에도 불구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그에 충성한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다. 현철이 생산대 저작학습이론 보도원 겸 청년대표로 대무위원회 성원이 되어 분희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을을 위해 헌신하는 분희를 인정하기에 이른다. 현철이 분희에게 청혼을 하여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 열사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철의 어

15) 『민들렁』, 『하고 싶던 말』, 27면.

머니는 이를 알자마자 새벽부터 분회를 찾아와 헤어질 것을 강요한다.

“기특한 말이오만 방법이 없소. 열사의 후손들에게 지주 계급의 색다른 피가 섞여 흐르게는 못 하겠으니 그리 아오!”<sup>16)</sup>

출신성분은 나쁘지만 조부와 손녀를 갈라보아 올바로 이끌어 준다면 열사 집안 며느리가 되기 위해 힘쓰겠다는 분회의 말에 서로 피가 다르다는 말로 대응한 것이다. 지주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넘어 열사와 지주의 피가 다르기에 서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출신성분이 단순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할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다.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와 다름이 없는 인간관으로 공산주의라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현실인식이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계급의 적을 설정하고 타도와 개조의 대상으로 삼아 인민의 힘을 결집하려 한 것이겠지만 그것이 중세의 신분제보다 더한 완고한 인간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평등을 지향하는 혁명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한다.

현철 어머니를 만난 날 저녁 분회는 현철의 집을 찾아가 현철과 그의 어머니 앞에서 현철의 장래를 위해 물러서겠다고 선언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구촌 당숙 부부와 함께 마땅한 혼처를 찾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민들령을 떠나고 만다.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지구우수교원이 된 분회는 민들령에 출장을 왔다가 구촌 당숙모로부터 분회가 떠나는 시간 현철이가 민들령에 올라 기차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다 기진하여 풀밭에서 잠들었는데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엮고 마을로 데려와 보니 실성해 있었다는 비극

16) 『민들령』, 『하고 싶던 말』, 40면.

적 사실을 듣게 된다. 다음 날 부모의 묘를 찾아 민들령에 오르던 분희가 산 속을 떠도는 현철을 만나 인사를 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다. 사랑하던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기원했던 분희의 기대는 물거품 같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것은 출신성분론에 매여서 아들이 진정 사랑하는 여자를 강제로 떼어놓은 현철 어머니가 잉태한 비극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증명했던 아들이 자신의 탓으로 실성한 채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삶은 죽음보다도 못한 삶일 것이다. 『민들령』이 보여주는 이러한 결말은 출신성분론이 단지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을 배제하고 억압하여 불행에 빠뜨릴 뿐 아니라, 출신성분론의 정당성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극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작품이 보여준 출신성분론에 대한 비판은 출신성분으로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는 인물을 그린 여타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보다 강렬하다.

『불세워크의 이미지』는 앞에서 살폈듯이 공산당의 순복도구가 된 기층간부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산당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주제가 중심을 이루지만 부자간의 갈등 요인이 되는 출신성분론 또한 작품의 중요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엇저녁에 뭘 했어요? 순정이를 불러내다가 무슨 말 했는가 말입니다.”

“관계를 끊으라구 했다. 그리구 류산을 하라구 했는데 그게 못할 소리냐?”

“류산이요? 어떻게 류산을 해요? 아버지들 제 피덩이를 끊어치울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윤준호는 울분을 삭일 수 없어 아궁이 앞에서 도끼를 쥐어 들고 가마뚜껑을 단매에 박산을 냈다. 그리고 찬장을 마구 들부시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울면서 빌고 말리고 해서야 광기를 멈추고 도끼를 떨어뜨렸다. 그 맵시로 벽에 이마를 붙이고 나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sup>17)</sup>

윤태철은 공산당 입당을 앞둔 아들 윤준호를 현 후계자 양성반을 거쳐 기층간부로 성장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들이 토지 개혁 초기에 청산을 맞아 죽은 허영세의 손녀 허순정과 사랑을 나누어 임신 5개월인 것을 알자 아들 몰래 순정이를 만나 유산을 강요하였다. 윤태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허순정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윤태철의 출신성분론에 따른 협박과 회유는 순정이가 구룡천에서 자살하도록 내몰았고, 윤준호가 불세위크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가슴 깊이 새겨 윤태철의 죽음 직전까지 부자가 의절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불세위크의 이미지』에서도 출신성분론은 조상을 잘못 둔 인물들에게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또 출신성분론을 맹종하여 자식의 사랑을 가로막은 결과 자살과 부자 의절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 결국 윤태철은 척을 지고 지내던 아들의 비난에 충격을 받아 쓰러진 후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에야 아들과 화해하는 비극을 초래한다. 이러한 결말은 『민들레』에서 보여준 비극과 동케로 출신성분론에 대한 정세봉의 강한 거부감을 보여준다.

정세봉이 이렇듯 출신성분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이유는 그의 생애와 관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정세봉은 1943년 할빈에서 댄스홀을 경영하던 정재모의 아들로 태어나 해방 후 부모를 따라 조부모가 살던 연변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였으나 길이 막혀 농촌에서 성장하였다. 1958년 어린 나이에 문학에 빠져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농민으로 호적을 붙이게 되었고, 오랜 동안 농민으

17) 『불세위크의 이미지』, 『불세위크의 이미지』, 213면.

로 지내면서 생산대 정치대장, 룡호대대 지부 당지부서기, 중학교 임시교사 등을 지내는 중에 소설 창작에 힘써 1975년 등단하였다. 그러나 정세봉이 이렇듯 농민으로 하층의 삶을 살면서 창작을 계속한 점만으로는 그가 출신성분론에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한 것이라기에는 의문이 따른다.

이러한 의문은 작가 스스로 밝힌 연보<sup>18)</sup>에서 이해의 단초가 마련된다. 연보에 따르면 그의 큰형 정세웅은 하얼빈 대도관고등학교 2기생으로 해방 후 동창들과 서울로 나가 해병대에 입대하여 5.16 군사구테타의 주체 세력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국립묘지 장군 제1묘역에 묻혀 있다. 그리고 작은형 정세룡은 큰형과 같은 학교 6기생으로 광복 직후 조선의용군 3지대에 입대하였고, 1948년 북한으로 나가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였다. 즉 정세봉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실패해 연변에 남아 농민이 되었고, 큰형은 남한으로 귀국하여 해군소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영달의 길을 걸었고, 작은형은 북한으로 귀국하여 인민군 탱크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것이다.

이러한 정세봉의 가족사<sup>19)</sup>는 그가 고증을 마치고 농민으로 남은 것이나 출신성분론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것이나 모두 그의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세봉의 아버지는 만주국 시대 하얼빈 중심가에서 해방 직후 조선의용대 3지대 문공단 본부가 될 정도의 규모를 가진 댄스홀을 경영했다는 점에서 그의 출신성분은 자산가나 친일파로 분류되었을 것이고, 큰형이 해방 직후 한국으로 나가 장군이 되었다는 사실도 정세봉의 성분 획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 그의 작은형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18) 「정세봉의 프로필 및 연보」,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458면.

19) 정세봉의 가족사는 해방 이후 재만조선인이 경험한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고는 하나 1948년 북한으로 건너가 조선인민군이 편입해 참전하였기에 그가 열사 가족이라는 명예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사는 그가 지주나 친일파의 자식으로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가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제약이 되었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그가 출신성분론에 대해 강한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도록 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해준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한 시기에는 매일이다시피 ‘개패’를 걸고 고깔모자를 쓰고 ‘투쟁’을 당했는데 그 ‘개패’라는 걸 무거운 널로 짜가지고 가느다란 철사로 끈을 달아 목에 걸었다. 고깔모자도 거칠은 널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한 번 쓰고 ‘투쟁’을 당하고 나면 얼굴과 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곤 했다. 때론 얼굴에 먹칠을 해가지고 개처럼 목을 매여 끌고다니곤 했다. 지주의 아들인데가 할빈 ‘대도관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일본 센포보시를 쓰고 찍은 사진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다.<sup>20)</sup>

지주의 아들이라는 출신성분 때문에 끊임없이 박해를 받던 허순영의 아버지가 문화대혁명 때 투쟁 당하던 모습을 서술한 이 장면에서 허순영의 아버지가 하얼빈 대도관국민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에 일본군 전투모를 쓰고 찍은 사진 때문에 더욱 모진 시달림을 당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얼빈의 일본인 학교인 대도관고등학교에 다닌 정세봉의 형들을 연상하게 하는 이 장면은 그에게 있어 가족사가 극좌적 정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정세봉의 가족사는 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작용하여 그의 작품에서 출신성분론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게 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0) 『‘불세워크’의 이미지』, 『‘불세워크’의 이미지』, 199면.

#### 4. 개혁개방 전후의 현실과 이기심

문화대혁명 직후 작가 생활을 시작한 정세봉은 집체 경제에서 개체 경제로 변화하는 개혁개방기를 시간적 공간으로 하여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기심을 비판한 작품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인민공사로 대표되는 집체 경영 방식은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경제 체제라는 점에서 소련이나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지만 생산성의 저하로 국가 경제가 황폐화되자 포기하기에 이른다. 인민공사에 소속된 모든 인민들이 능력껏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는 공산주의적 인간에 도달해야 가능한 공산주의적 경제 체제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벽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이다. 정세봉이 이와 같은 집체 영농의 폐해를 그려낸 작품으로 「농촌점경」을 들 수 있다.

집체 영농 시기에 농민들은 생산대장이 배정해준 일을 마친 뒤 공수책에 작대기 하나를 긋고, 그에 따라 가을걷이 후에 공수 등급을 매겨 생산물을 분배받게 된다. 강동마을의 선천적 청각장애인 김억손은 농사 요령은 없지만 맡은 일은 드세게 하던 인물이지만 배정된 곳에서 하루 일만 하면 동일한 공수를 받는다는 것을 터득하고는 대장이 어떤 일을 배정하든 편한 작업장으로 가서 하루를 얼렁거리다가 작대기만 받아둔다. 일의 성과와 관계없이 참여만 하면 공수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게으른 농사꾼이 되어버린 김억손은 개체 영농이 시작되자 자기가 분배받은 농토는 실농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눈발에서 얼렁거리고는 자기가 만든 공수책에 작대기 하나를 그어둔다. 다른 농군들이 공수만을 챙기는 그의 속심을 짐작하고 일을 못하게 하자 싸움판을 벌이고 대대사무실에 고소하러 가기도 한다.

동쪽에서 어느새 내려왔는지 ‘토개아바이’는 지팽이를 잡고  
그런 듯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강  
동마을의 반세기 력사가 전책처럼 묶여져 있다. 필경 그는 그  
전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번져보고 있었으리라!...

“세월이 게으름뱅이를 만들었누? 얼뜨기 농사꾼이 세월을  
회롱했누?”

‘토개아바이’는 급기야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었다.<sup>21)</sup>

김억손이 벌인 소란을 지켜본 마을의 어른 토개아바이는 회한에  
사로잡힌다. 성실했던 농사꾼들이 농사꾼의 본심을 잃어 얼뜨기 농  
사꾼으로 바뀌어 버린 세월을 아쉬워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집체  
영농으로 생산성이 저하되자 개체 영농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집  
체 영농 시기에 형성된 이기심 때문에 마을의 실농꾼들이 얼치기 농  
사꾼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또 이러한 얼치기 농사꾼  
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에게 배분된 농토에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개체 영농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즉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적응하여야 함을 보  
여준다.

『토혈』 연작<sup>22)</sup>은 홍수와 종철이란 두 인물을 통해 시대 변화에  
적응 여부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현실을 소설화하고 있다.  
집체 영농 시절에 종철은 마을회의에서 ‘논일과 밭일에 막힘이 없고  
육모와 논물 빼기에 기술이 높은’<sup>23)</sup> 홍수를 ‘회의에 와서 한 마디도

21) 『농촌점경』, 『하고 싶던 말』, 148면.

22) 1982년 발표한 『첫대집』(『하고 싶던 말』 수록)과 그 후일담에 해당하는 『최후  
의 만찬』(1993) 그리고 두 작품의 속편이라 부제를 붙인 『토혈』(1994) 등 세  
작품은 『불세워크의 이미지』에 『토혈』이라는 제목 아래 각 장으로 수록되어 있  
다. 본고에서는 세 작품을 합쳐 『토혈』 연작이라 칭하고, 각 작품을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에는 각 작품의 제목을 사용하며, 작품 인용은 『토혈』, 『불세워크의  
이미지』, 면수로 한다.

할 줄 모르는 정치불문이 표준공을 받을 수 있소? 홍수를 세 번째 등급으로 앉혔으면 좋겠다'<sup>24)</sup>거나 '육모관리도 제 공수벌이지. 정치 사상이 낮은 사람이 모범사원 자격이 있나요?'<sup>25)</sup>라는 말로 깎아내려 공수를 낮추고 제 공수는 열심히 쳤었다. 그러던 그가 개체 영농이 시행되자 난생 처음으로 생일날 홍수를 초대해 대접을 하면서 '책임제 농사를 하자니 근심이 태산 같다니까. 말말 간에 장을 빈다고 홍수가 도와줬으면 시름을 놓겠소. 자, 술을 드요!'<sup>26)</sup>라 홍수를 얼러 이익을 챙긴다. 현실 변화에 약삭빠르게 대응하는 종철은 개혁 개방으로 개인 사업이 허용되자 도시로 나가 식당으로 또 노래방으로 돈을 벌고는 홍수를 꼬드겨 도시로 나오게 한다. 그러나 홍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위로를 하는 척하지만 결코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아 홍수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집체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적인 경제 체제를 수용할 때,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이익 창출에 대한 열망과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기심에 기반해야 한다<sup>27)</sup>는 점에서 공산주의적 인간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타심을 요구하는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홍수의 몰락은 농업 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영농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몫을 챙길 욕심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능력도 없는 자에게 예정된 결말이다. 이런 점에서 『토혈』 연작은 집체 영농 떠나 개혁개방 이후나 세상을 살아

23) 『토혈』, 『불세워크의 이미지』, 79면.

24) 『토혈』, 『불세워크의 이미지』, 82면.

25) 『토혈』, 『불세워크의 이미지』, 83면.

26) 『토혈』, 『불세워크의 이미지』, 82-3면.

27) 이하 합리적 이기심에 대해서는 아인 랜드, 정명진 역, 『이기심의 미덕』, (부글, 2017.)의 1장 참조.

가기 위해서는 성실함보다 이악스러움이 더 필요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토혈』 연작에 나타난 시대 변화에 대한 인식은 앞에서 본 『농촌점경』에서 보여준 현실인식과 동궐에 놓이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농촌점경』과 『첫 대접』은 집체 영농이 개체 영농으로 전환한 시기에 발표된 데 비해 『최후의 만찬』과 『토혈』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93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집체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체 영농을 받아들인 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생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기에 『농촌점경』의 결말에서 보여주듯 농민들이 자기에게 배분된 농토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부가 획득되리라는 논리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농사기술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가족들에게는 공동체 사람들이 상부상조함으로써 다 함께 부유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sup>28)</sup>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개체 영농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해져 자신의 농토를 임대하고 도시로 나가 개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농촌 사회는 급속히 파괴되고 빈부의 차가 심해지기 시작한다. 『최후의 만찬』과 『토혈』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첫 대접』에서 보여준 이악스러운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개혁개방으로 극명하게 드러나 이기심 탓으로 빈부의 차가 심해지고 인간성이 타락하는 현실을 비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슬픈 섭리』는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에 적응하는 일과 새로운 윤리의 문제에 대한 모색을 보여준다. 문승규는 10년 전 콩기름 장사꾼으로 나서서 고생 끝에 두유대왕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성장한다. 그가 사업에 성공하자 O시장에서만 14명의 기름 장사꾼이 경쟁하게 되자 그들과 공존하려 애를 쓴다. 그러나

28) 개체 영농이 시작된 초기 발표된 많은 소설 작품에 이러한 상부상조에 대한 기대가 잘 드러나 있다.

오 씨 형제가 공상국과 시장 관리소를 끼고 시장 매대의 요지를 장악하자 그들의 비리와 부정을 응징하기 위해 가격 경쟁을 벌인다. 콩기름 가격이 폭락하자 오 씨 형제는 버티지만 시장의 거의 모든 장사꾼들이 폐업하고, 시내 여러 시장에서도 동요가 일어난다. 6개월 정도만 더 버티 오 씨 형제에 대한 응징을 마무리하려던 문승규는 시장 상인들에게 납치되어 협박과 폭력을 시달린 뒤 어디엔가 버려지자 상인들에 대한 원망을 터뜨린다.

‘그들은 마땅히 나를 리해해야 하는 건데… 나와 동심협력 해서 오씨 형제와 부정한 권력을 싸워 이겨야 하는 건데… 도리어 나를 꺼꾸러뜨리려 하다니? 눈앞의 리익에만 눈이 멀어 있는 바보 같은 것들!… 불쌍한 것들!…’

문승규는 그들이 몹시도 야속했고 형언할 수 없는 커다란 실의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권력에 순종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을 어쩔 수 없는 것이 백성의 삶임을, 그것이 곧바로 눈멀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인생 섭리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 섭리를 거역하고 나선 자신이 우습기 짝이 없었다.<sup>29)</sup>

국가 정책에 따라 모든 경제 활동이 계획되고 지배되던 집체 경제를 벗어나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한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의 도입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로의 전환에는 경제와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윤리의 확립도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사회 구성원이 최대한의 자유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이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문승규가 권

29) 『슬픈 섭리』, 『불세워크의 이미지』, 83면, 135면.

력과 결탁한 부정한 장사꾼 오 씨 형제를 응징하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백만장자 장사꾼이 아니고는 견디지 못할 가격 경쟁을 벌임으로써 시장 내 모든 동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민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부정한 장사꾼을 응징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콩기름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는 시장 내 장사꾼들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또 가격 경쟁의 결과는 그 의도가 어떠한 최종적으로는 독점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도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할 죄악이다.

문승규는 시장의 장사꾼들이 부정한 장사꾼을 몰아내려는 자신의 의도를 몰라주는 것을 섭섭해 한다. 그는 이 폭력 사건을 통해 권력에 순응하고 비리와 부정을 용인하는 것이 모래알 같이 백성들의 섭리고 그것을 거역하려 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경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고, 의도가 선하더라도 방법이 옳지 못하면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망각한 결과이다. 이는 시장 내의 비리와 부정에 대항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과 연대하여 공존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시장 경제의 윤리를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정세봉은 개혁개방으로 대두한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소설화하였다. 그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성실하게 일하면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얼치기 농사꾼을 풍자하였지만,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점차 빈부 격차와 인간성 타락 등을 비판하고 시장 내의 비리와 독점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는 개혁개방은 공산주의적 경제 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작가로서 정책 변화에 큰 희망을 보였지만 이후 시장 경제의 병폐를 경험하고 그를 소설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세봉이 보여준 개혁개방과 개체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대두된 사회 문제들을

다른 소설들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천착이 없이 드러난 외면적 현상만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이는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정세봉이 자본의 문제점을 읽어내기는 하였지만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떠받치는 합리적 이기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했음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이후 정세봉이 더 이상의 소설 창작을 하지 못하는 한 요인이 된다.

## 5. 결론 : 정세봉의 작가적 한계

정세봉은 첫 소설집 『하고 싶던 말』의 머리말에서 ‘나의 소설들에 등장된 인물들은 거개가 다 고향 농촌에서 모델을 찾은 것이며 소재와 이야기 줄거리 및 세월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오지 않은 것 이란 없다’<sup>30)</sup>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작가의 변은 자신의 소설이 사회 현실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고 또 사실적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작가 자신이 살았던 농촌에서 직접 본 인물을 모델로 하였고 소재와 줄거리는 물론 사소한 부분들까지 자신의 주변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기반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문학 세계가 어느 정도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문학에 빠져 중학교를 마친 뒤부터 농민으로 살아가면서 소설 창작에 매진한 정세봉으로서는 농촌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공산주의 이념이 지배하다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의 농촌 모습을 소설화하는 것이 창작의 한 방안

30) 『머리말』, 『하고 싶던 말』, 3면.

이 될 수 있었다. 출신성분에 막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인물, 지주와 그 자손을 인민의 적으로 심판하던 기층간부가 국가의 정책이 바뀌자 그들의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는 마을 간부의 모습을 소설화하여 변혁기 농촌의 모순을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마흔이 넘은 나이에 농민 호구를 벗고 전업 작가가 되어 연길로 이주한 정세봉은 그가 농촌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개혁개방 이후 급변하는 중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낯선 도시에서 빈민으로 살아가게 되어 농촌에서와는 달리 소설의 제재가 될 만한 인물이나 사건을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자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써온 정세봉으로서는 창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사회문제와 자본주의적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접하기 어렵고 또 그러한 인물이나 사건의 이면에 깔린 다양한 의미들을 짚어내는 정치적 감수성이 부족한 정세봉은 『슬픈 섭리』(1992), 『최후의 만찬』(1993), 『토혈』(1994), 『엄마가 교회에 나가요』(1995) 등 자본주의화된 중국의 도시가 보여주는 사회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발표하지만 농촌을 제재로 한 전작들이 보여주던 현실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비판의식이 부족해진다. 이에 한계를 느낀 듯 정세봉은 1998년 『불세워크의 이미지』를 출간한 후 창작을 중단하고 만다.

장기간의 절필 끝에 정세봉은 단편소설 『고골리 송배자』<sup>31)</sup>를 중국과 한국에서 발표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노작가 니콜라이 유는 고골리를 송배해 그런 작가가 되기 위해 평생을 바쳐 작가로서 명성을 얻었지만 스스로 작가로서의 능력에 실망하여 절필을 결심하고

31) 이 작품은 『장백산』 2015년 6호와 『국제문예』 2015년 가을호 등에 발표되었다. 본고에서는 정세봉의 네이버 블로그(<https://muzhu221.blog.me/90131808899>)에 실린 판본을 참고했다.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운다. 그 순간 잠재의식으로 비롯한 환영의 세계로 빠져든 니콜라이 유는 청년 시절의 자신을 만나고, 러시아 대지에서 펼쳐지는 고틀리 탄생 206주기 기념 축제장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감상에 젖어 고틀리 같은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다가 세 필의 말이 끄는 눈썰매를 타고 눈 덮인 벌판을 달리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든다.

환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 정세봉은 니콜라이 유를 통해 장기간 절필을 한 작가로서 자신의 심경을 보여준다.<sup>32)</sup> 니콜라이 유가 혹여 작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 갈등하는 일이 생길까 두려워 분서를 결행하는 순간 열혈문학소년이었던 자신인 꼴라<sup>33)</sup>가 나타난다. 꿈만 먹고 사는 꼴라에게 자신은 패배자라고 말하자 꼴라는 지금 내 미래의 운명을 보고 있는 것이냐 항변한다. 이에 당황한 니콜라이 유는 '열혈문학소년 꼴라는 영원한 꼴라이고, 잔디 언덕의 꿈은 영원히 영롱하고 찬란한 것'이라 대답한다. 이 같은 니콜라이 유와 꼴라의 대화는 오랜 시간 절필한 작가로서 가지게 되는 꿈에 부풀었던 젊은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작품을 창작하지 못하는 작가로서 느끼는 절망감과 회의가 동시에 느껴진다.

작가적 능력에 회의를 느낀 노작가가 열정적인 작가지망생이었던 청년시절의 자신을 대면하는 일은 상상하기 싫은 상황일 것이다. 『고골리 숭배자』에서 니콜라이 유와 꼴라가 긴 대화를 나눈 후, 환영 속에서 고틀리의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만나는 장면은 작품을 쓰지 못하는 고통에 시달리는 정세봉의 정신세계를 짐작하게

32) 이시환은 이 작품을 고틀리의 러시아 문학에 심취했지만 그 한계와 벽을 넘어서지 못한 자신의 절망감과 우울을 형상화한 것이라 평가한다. 『정세봉의 문제작 〈고골리 숭배자〉를 읽고서』,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278면.

33) 니콜라이는 고틀리의 이름이고 꼴라는 니콜라이의 애칭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쓰는 정세봉의 내면풍경을 짐작하게 해 준다.

해준다. 이런 점에서 니콜라이 유가 봉착한 절망은 『하고 싶던 말』과 『‘불세위크’의 이미지』 등의 작품에서 보여준 치열한 현실비판을 개혁개방 이후 변화한 시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현실인식으로 이어가지 못해 절필한 작가 정세봉이 맞이한 정신적 황폐감과 동귀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정세봉, 『하고 싶던 말』, 민족출판사, 1985.
- 정세봉, 『불세위크의 이미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8.
- 정세봉, 『불세비키의 이미지』, 신세림출판사, 2003.
- 정세봉의 네이버 블로그 <https://muzhu221.blog.me/90131808899>
- 김봉웅, 「우리 시대의 인간성격에 대한 탐구」, 『20세기중국조선족문학선집 4』, 연변인민출판사, 1999, 113-132면.
- 김호웅 외,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 아인 랜드, 정명진 역, 『이기심의 미덕』, 부글, 2017.
-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 오상순 주필,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 전병철, 『20세기 중국조선족 10대 사건』, 환경공업출판사, 1999.
- 전성호, 「작가와 정감과 작품」, 『중국 조선족 문학 예술사 연구』, 이회, 1997, 127-139면.
- 정세봉 편저, 『문학, 그 숙명의 길에서 - 정세봉과 그의 문학』, 신세림출판사, 2017.
- 최병우,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2012.
- 프랑크 디코터, 고기탁 역, 『해방의 비극』, 열린책들, 2016.



<Abstract>

## A Study on Jeong Se-bong's Novel

Choi, Byeong-Woo

Jeong Se-bong has been highly regarded in that he managed to write a fine novel and that he critically recognized the reality of China as he lived his life as a farmer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emes of his works with a more diverse perspective based on the accomplishment of previous research on Jeong Se-bong's novel.

Major themes appearing in Jeong Se-bong's novel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jor themes. They include firstly, negative views on the absolute authority that was prevalent in society, secondly, criticism of the family background theory that was prevalent in Chinese society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communist state, and thirdly,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capitalism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Regarding all his works, such as novels, characters, events, etc., Jeong Se-bong stated that he was based on the facts himself. This method of creation positively influenced novels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s of farmland, but resulted in the inability of his literary world to expand into a wider area.

Key words: Reform and openness, capitalism, reality criticism, denial of authority, family background, selfishness, writer's limit

투 고 일 : 2018년 4월 15일    심 사 일 : 2018년 5월 14일-5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